

내년엔 우주로...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순항

과기부·항우연, 현장 공개 발사체 심장 75t엔진 연소시험을 하반기 비행모델 조립 착수 내년 2월·10월 두차례 발사 제2 발사대도 신규 구축 중



15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조립동에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 1단 체재개발모델(EM)이 공개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연구동. 정오가 되자 나지막한 기계 소리가 울리며 센터의 적막을 깬다. 1km 정도 떨어진 실험동에선 새하얀 수증기가 뿜어오르며 피어올랐다. 우리 손으로 만드는 우주발사체 '누리호'(KSLV-II)에 들어갈 75t급 엔진이 연소 시험에 들어간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측은 이날 누리호 개발 현장을 기자단에 공개했다. 한영민 항우연 엔진시험팀 팀장은 "이번이 139번째 연소시험"이라며 "앞으로 6회 시험을 추가해 145회째 연소 시험을 마치는 2월 중순이면 엔진 개발이 완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주센터 내 지상연소시험설비에서는 시험을 마친 엔진을 실제로 볼 수 있었다. 시험이 끝난 지 2시간 30분이 지났지만, 주변에선 여전히 매캐한 탄내가 났다. 한 팀장은 "초당 케로신(등유) 80kg, 산화제 170kg을 태우며 2000℃의 고온을 내뿜는다"면서 "이를 400℃로 식히기 위해 초당 1400kg의 물을 투입하는데, 이 과정에서 방대한 양의 수증기가 뿜어져 나온다"고 설명했다. 누리호는 1.5t짜리 인공위성을 고도

600~800km의 지구 저궤에 올려놓을 수 있는 길이 47.2m, 무게 200t의 3단형 우주발사체다. 75t급 엔진은 한국형발사체의 '심장'으로 불린다. 발사체 1단에는 이 엔진 4기가 묶음 형태(클러스터링)로 들어가고, 2단에도 1기 들어간다. 2018년 11월 항우연은 이 엔진을 단 시험발사체를 쏘아 올리며, 엔진 성능을 직접 입증하기도 했다. 고정환 항우연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본부장은 "연소 목표 시간이 140초였는데 151초간 연소했다. 엔진 성능이 우리 생각보다 더 잘 나왔다"면서 시험 발사가 성

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75t 엔진 네 기를 묶는 1단부 기체는 조립해 하반기에 시험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립동에서는 거대한 원통 형태의 1단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연료를 공급하는 성능을 평가하는 '수류시험'을 앞두고 조립된 상태였다. 단별 조립 시험과 성능을 평가한 뒤, 올 하반기부터는 비행모델(FM) 조립에 착수한다. 모든 과정이 진행되면 누리호는 내년 2월과 10월 두 차례 발사된다. 누리호 발사를 위한 '제2발사대' 건설

현장도 공개됐다. 엔진 시험발사체는 2013년 나로호를 쏘던 발사대를 개조해 발사했지만, 누리호는 나로호보다 1.4배 더 긴 만큼 기존 발사대를 이용할 수는 없다. 누리호에 추진제를 공급하고, 발사체를 세운 상태에서 발사 준비 작업을 하는 높이 45.6m짜리 '엄밀리칼 타워'의 모습도 발사대 건설 현장에서 볼 수 있었다. 건설일 항우연 발사대팀장은 "현재 공정률이 93% 정도"라면서 "4월까지 설치를 마치고 점검과 테스트를 거쳐 10월까지 완공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글로벌모터스 23명 모집에 358명 지원

경력 간부 경쟁률 16대 1...상반기 2차 채용 광주형일자리 적용 사업장인 (주)광주글로벌모터스 경력적 간부사원 채용에 지원자가 몰렸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제1차 경력적 직원 공개채용 서류접수 마감 결과, 23명 모집에 총 358명의 지원자가 몰려 1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다만 회사 측은 모집분야별 지원현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임금이 동종 대기업의 절반인 '반값 연봉' 수준이어서 생산-품질관리 분야에서 역량있는 인재를 확보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회사 측은 서류 평가, 인성 및 조직적합도 검사, 면접 등 절차를 거쳐 2월 중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 이행을 위해 외부 전문가에

채용 업무를 맡겼다. 서류 접수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7일까지 19일간 진행됐다. ▲사업기획 ▲경영지원 ▲생산 ▲품질관리 등 일반직 4개 분야에서, ▲팀장급 관련 분야 경력 10년 이상자 ▲과장급 관련 분야 경력 5년 이상자 ▲자문위원은 관련 분야 경력 15년 이상의 경력자로 제한했다. 부장·차장인 팀장급 11명과 과장급 11명, 생산관리자문위원 1명 등 총 23명을 뽑을 계획이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올해 상·하반기 2, 3차 경력사원 공개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 또는 2021년 상반기 대규모 생산직 신규 인력 채용 과정에서는 '지역 인재 우대'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구체적 방안을 수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중 '우한 폐렴' 환자 하루만에 17명 늘어...누적환자 62명

중국 중부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른바 '우한 폐렴' 환자가 하루 만에 17명이 늘었다.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는 지난 17일 하루 동안 17명이 확진돼 누적 환자가 62명으로 증가했다고 19일 웹사이트에서 발표했다. 환자 62명 가운데 19명이 퇴원했으며 중증 환자는 8명이다. 지금까지 2명이 사망했다. 환자들과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은 763명이며 이들 중 681명은 이상이 없어 의학 관찰 대상에서 해제됐다. 밀접 접촉자의

감염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지난 17일 새로 확인된 환자 가운데 남자는 12명, 여자는 5명이다. 60세 이상은 8명, 60세 이하는 9명이며 연령대는 30~79세다. 발병일은 1월 13일 이전이다. 이들 환자는 새로운 장비를 이용한 검사에서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 우한 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일부 환자는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진원지로 수산시장이지만 야생동물도 도축해서 판매해온 화난(華南) 수산도매시장에 노출된 적이 없다. 이는 사람 간 전염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연합뉴스

北 신임 외무상에 리선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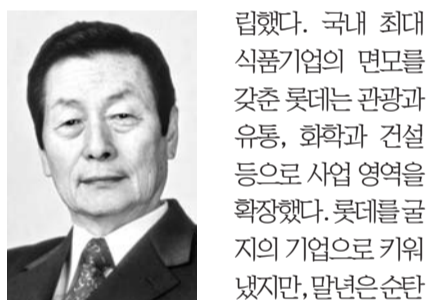
북한의 외교전략을 총괄하는 신임 외무상이 리용호에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으로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북측의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주 후반에 이런 내용을 북한 주재 외국 대사관들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출신으로 남북군사실무회담 대표를 맡기도 한 리선권 신임 외무상은 북한의 대남 기구인 조평통을 이끌어 온 인물로, 남북고위급회담의 북측 단장으로 활동하는 등 대남 분야에서 활동해왔다.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평양을 찾은 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무궁무리로 남아가느냐'라고 핀잔을 주는 등 '딱 말'을 했다고 알려져 구설에 올랐던 인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리선권은 정작 대남관계를 제외하고 전방적인 외교 분야와 관련된 경력은 알려진 바가 없다. /연합뉴스

검으로 시작해 재계 5위로...롯데 창업주 신격호 명예회장 별세

향년 99세... 日서 롯데 설립 후 국내 제과·관광사업 확장 아들과 경영권 분쟁으로 순탄치 않은 말년... 22일 발인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사진) 명예회장이 19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9세. 신 명예회장은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 중 전날 병세가 급격히 악화했으며 이날 오후 4시 29분께 신동빈 롯데 회장 등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 신 명예회장의 별세로 이병철 삼성 회장, 정주영 현대 회장, 구인회 LG 회장, 최정현 SK 회장 등 '창업 1세대 경영인'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됐다. 고인은 한국과 일본 양국에 걸쳐 식품·유통·관광·석유화학 분야 대기업을 일궈낸 자수성가형 기업가다. 맨손으로 검 사업을 시작해 롯데를 국내 재계 순위 5위 재벌로 성장시킨 '거인'으로 평가받는다.

1921년(주민등록상으로는 1922년) 경남 울산에서 5남 5녀의 첫째로 태어난 신 명예회장은 일제강점기인 1941년 혈혈단신 일본으로 건너가 신문과 우유 배달 등으로 고학 생활을 했다. 1944년 선반(철삭공구)용 기계를 제조하는 공장을 세우면서 사업을 시작했으나 2차 대전 때 공장이 전소하는 등 시련을 겪었다. 비누와 화장품 등을 만들어 재기에 성공한 뒤 검 사업에 뛰어들었고 1948년 (주)롯데를 설립했다. 이후 초콜릿, 비스킷, 아이스크림, 청량음료 부문에도 진출해 성공을 거뒀다. 일본에서 사업을 일으킨 신 명예회장은 고국으로 눈을 돌렸다. 한일 수교 이후 한국 투자가 길이 열리자 1967년 롯데제과를 설립했다. 국내 최대 식품기업의 면모를 갖춘 롯데는 관광과 유통, 화학과 건설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롯데를 굴지의 기업으로 키워냈지만, 말년은 순탄치 않았다. 2015년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차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간의 경영권 분쟁이 터지면서 위기를 맞았다. 유족으로는 부인 시계미쓰 하츠코(重光初子) 여사와 장녀 신영자 이사장,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 차남 신동빈 회장, 사실촌 관계인 시미경 씨와 딸 신유미 씨 등이 있다. 장례는 롯데그룹장으로 치러진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2일 오전 6시다. /연합뉴스



그는 무엇보다 후학 양성에 몰두했다. 1975년 학생이예연구원을 개설한 그가 키워낸 제자는 1만 2000여명에 달하며 문학생으로 구성된 (사) '학정 연구학회', '지선목 연회' 등은 한국을 대표하는 서예단체가 됐다. 이 서예가의 작품은 국립 5·18 민주묘지 '민주의 문', 광주 5·18 민주광장 민주 종각, 광주현충탑 등과 화엄사, 송광사 대웅전, 대흥사, 불국사, 범어사 등 전국 사찰에 걸려있다. 빈소는 조선대병원장례식장 제1 분향소, 발인은 오는 20일.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한국 서예 대가' 학정 이돈홍 선생 별세

향년 74세... 20일 발인

서예 한 길을 걸어온 '한국 서예계의 대가' 학정(鶴亭) 이돈홍(사진) 선생이 18일 지방인 식도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74세. <관련기사 16면> 담양 출신으로 만 20세 때 송곡(松谷) 안규동(安圭東) 선생 문하에 들어간 그는 한국 고유색을 가진 동국진체를 기반으로 자신만의 개성을 담은 자유로운 서체인 '학정체'를 완성했다. 베이징대학교 서법예술연구소 객좌교수와 중국산시대 초빙교수, 주한 중국대사관 중국문화원 고문으로 활동하는 등 한·중 서예 교류에 기여한 그는 광주 미술협회 회장, 국제서예협회 회장, 국제서법예술연합 한국본부 부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허백련상, 석재 서병오 서예상 등을 수상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그는 무엇보다 후학 양성에 몰두했다. 1975년 학생이예연구원을 개설한 그가 키워낸 제자는 1만 2000여명에 달하며 문학생으로 구성된 (사) '학정 연구학회', '지선목 연회' 등은 한국을 대표하는 서예단체가 됐다. 이 서예가의 작품은 국립 5·18 민주묘지 '민주의 문', 광주 5·18 민주광장 민주 종각, 광주현충탑 등과 화엄사, 송광사 대웅전, 대흥사, 불국사, 범어사 등 전국 사찰에 걸려있다. 빈소는 조선대병원장례식장 제1 분향소, 발인은 오는 20일.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요양병원, 힐링센터
부지/매/매**

- 풍암동, 화순 전대병원 10분거리
- 현재 한옥식당 및 찜질방
- 계획관리지역 약3000평 (용적율 40% / 100)
- 보존관리지역 약2500평 (편백나무숲, 산책로 조성가능)
- 매매가격 33억5천만원 (용20억포함)

**힐링센터
공동투자자 모심**

- 개인명의 재산을 법인으로 100% 전환 후 지분 50:50
- 공동대표 등기 후 투자자께서 100% 운영
- 투자금액 13억5천만원 (힐링센터 시설 리모델링 비용)

소유자 : 010-7570-7525
(나주시 남평읍 풍림죽림길 86)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매도·교환

- 담양 월산면 월계리 대지 등 2268㎡ 전원생활 적합 교환 가능 1억5천
- 월산동 돌고개역 인접 소방도점 2층 주택 땅 106㎡ 집 112㎡ 공평등 적합 1억3천
- 전원주택 적합 영광군 백수해안도 인근 1130㎡ 전방 좋은 1억3천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땅 664㎡ 주택 124㎡ 4억3천 조용한 생활 적합
- 전북 부안군 백산면 소재지 상업지 706㎡ 무인텔 등 적합 교환 가능 2억
- 목포시 외달도(달동) 329평, 638평 투자전망 최고 평당 23만원
- 화순 농주면 소재지 땅 2612㎡ 전원생활화합 2억700
- 함평군 송남면 산남리 땅 9143㎡ 집 67㎡ 귀농생활 적합 2억
- 별장 영산강 부근 나주시 다시면 화진리 땅 450㎡ 건평 110㎡ 매도 2억8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청고 공장 등 적합 6억
-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3647㎡ 빌라 등 적합 약국용 건물과 교환 가능 20억
- 담양군 금성면 석현리 915㎡ 창고·다세대 등 다용도 적합 2억9천
- 남구 덕남동 (노대동 노인간담터) 부근 대지 652㎡ 남향 가격조정 가능 5억5천
- 남구 덕남동 산10000㎡ 사할·화가 화실·작가 작품 활동 적합 건물 67㎡ 5억

상가 건물

- 백양사와 내장사 사이 추령고개 땅 403㎡ 가계 197㎡ 카페용·편의점 적합 1억3000
- 서석동 조대말 4층 상가 땅 405㎡ 건물 919㎡ 임대 보증금 6천 월 280, 12억
- 충정로47가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1200 매도 26억
- 월산동 농성초교 도로점 땅 190㎡ 2층 상가주택 185㎡ 매도 3억
- 은암동 아파트 단지 인근 땅 1124㎡ 건물 1733㎡ 전세 7천 월 680 임대 21억
- 유동 신축카페용 대지 73㎡ 2층건물 30평 시설완비 은행 1억 매도·교환 3억6천
- 북구 임동 모델 땅 318㎡ 건평 5층 528㎡ 은행 2억3천 매도 6억천

특급 물건

- 목포시 대양동 1층주거지 4121㎡ 투자·다세대 등 적합 7억2천
- 남구 월산동 1층주거지 637㎡ 원룸·다세대 적합 7억8천
- 구례군 구례읍 서지천(경의면) 11050㎡ 빌라·요양시설 적합 14억
- 목포대 부근 창계면 도림리 2층주거지 땅 4413㎡ 강정 5억7천 농협 4억8천 매도 1억천
- 화순군 동면 서성제 별장 대물교환 가능 은행 3억5천 있고 매도는 6~7억
- 나주시 남평동 상업지 959㎡ 마트·식당·대규모 적합 은행 5억 교환가능 9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연문앞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8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 지국안내 •

북구	• 동 광 266-1920	• 문 총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안 산 571-7658	• 오 지 266-7601
	• 동 통 433-1503	• 우 산 433-1503	
동구	• 남 광 675-5530	• 동 정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양 222-9054	• 중 장 222-8171	
남구	• 남 부 652-0175	• 백 운 651-1833	• 봉 선 675-5530
	• 송 화 675-6605	• 진 월 671-7276	
서구	• 광 천 382-5788	• 상 우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윤 천 376-7153	• 지 평 376-6511	• 풍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윤 남 952-1687	• 월 골 959-1920	• 침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선 944-0444	